

美 한인 정치인 한자리에 모인다

3월 사흘간 컨퍼런스... 정치력 높일 전국적 단체 출범 계획

미국내 전·현직 한인 정치인과 차세대 리더들이 한자리에서 만난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임용근 전 오리건 주 의원), 미주동포후원재단, 재외동포재단은 10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내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회 미주한인정치인 컨퍼런스 및 차세대 리더십 포럼'을 3월 24일부터 3일간 연다고 밝혔다.

'미주 한인의 정치력 신장과 동포사회의 혜택과 위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미셸 리 전 워싱턴D.C. 교육감, 미셸 박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 강석희 어바인 시장,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 등 전·현직 한인 정치인을 비롯, 고경주 연방보건부 차관보, 유진 강 백악관 특별보좌관 등 한인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초청될 예정이다. 또 차세대 정치 지망생과 한국 정계 인사들도 참여,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리더 양성,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의 한인 권



김창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미셸 리, 신호범, 유진 강.

리함양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임용근 전 의원은 "108년 역사를 가진 미주한인 이민사에서 전·현직 한인 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인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리더십 육성을 위한 전국 규모의 비영리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